



## 가톨릭의학윤리지침서 토론회 개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가톨릭의료기관을 위한 의학윤리지침 토론회를 10월 4일 오후 1시 30분 가톨릭의과학연구원 1002호에서 개최하였다.

현대사회의 생명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은 질병 치료 분야에서도 눈부신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물질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의 확산과 함께 의료 분야에서도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드러난다. 실상 질병 극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인류에게 건강한 삶과 생명연장이라는 경이로

운 미래를 가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의료 분야도 극도의 개인주의와 왜곡된 형태의 자유가 파고들어 심각하리만큼의 비인간적 양상이 드러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그러한 관심이 1986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학윤리지침서'를 1991년에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지만 오늘날 의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의학윤리지침서'를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학술연구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의 사업계획으로 서울대교구 산하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의학윤리지침서'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우선 1991년에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의학윤리지침서'를 검토하여 개정 및 수정 보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10-20년간의 생명의학의 눈부신 발전이 인간 생명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인류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근심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의학의 놀라운 발전에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여러 분야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생명의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분야를 점검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현실과 내용 나아가 가톨릭적 해결방법과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교황청 각종 문헌들과 역대 교황들의 회칙, 담화문과 각국 주교회의 등이 발표한 의료환경 관련 윤리지침 내용 등을 적극 수렴했다.

본 '의학윤리지침'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톨릭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진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방향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가톨릭 신자로서 생명의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가톨릭이념에 따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에는 이동익 신부를 비롯한 11명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0월 4일에 가톨릭 의과학연구원에서 있었던 가톨릭의학윤리지침서 토론회의 논평자로는 이진우(의정부 성모병원), 홍영선(강남성모병원), 고윤석(울산의대), 김태규(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장) 교수등이 논평자로 참여했다.

이 의료지침은 일부 수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정식 공표된다.

